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분석

장영창 (경희대학교 강사)

논문요약

작가가 하나의 문학작품을 만들 때, 수많은 요소가 상호작용한다.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 당시대의 사회 환경, 작가의 내면적 정서, 확고한 가치관 등이 서로 부딪힌다. 이러한 혼돈을 거친 후에, 일정한 미의식이 창발하여, 작가만의 미학적 취향이 발현된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자기조직화 하여 표현하는 것이 문학작품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하게 창발하는 작품의 세계를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이론을 활용하여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인의 대답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시인의 철학이 시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한 결과 ‘눈, 돌, 봄비, 안개꽃, 고드름’이라는 자연의 소재가 박이도의 시적 언어를 통해 ‘축복과 기도문으로서의 눈, 태고의 침묵을 깨는 돌, 생명의 봄비, 회중 기도의 안개꽃, 부활하는 고드름’으로 승화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 라는 박이도의 신앙고백을 ‘경험을 통해 삶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신앙,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신앙, 거듭남의 기쁨을 노래한 신앙’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복잡계, 자연 계시, 시적 형상화, 기독교 신앙, 임계점, 한계점(최고점)

1.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서

한 시인의 삶과 문학은 ‘성장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자신의 내면적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혼돈 속에서 일정한 미의식으로 창발하여, 작가의 미학적 취향을 향상시키면서 문학적으로 자기조직화 하여 표현된 것’으로 복잡계적 현상의 중요한 한 사례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여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복잡계 이론으로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된 시인의 삶과 문학적 형상화의 미학을 재고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 복잡계 이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성장배경과 환경, 가치관과 종교성, 시인의 언행과 시적 표현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박이도 시인은 신앙시집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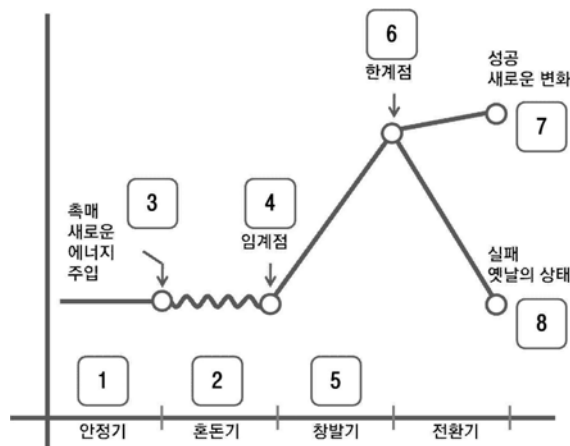
“성서는, 내가 문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음으로써 미약한 내 신앙의 보루가 되었다. 이 시집은 내 평생의 작업 중 신앙시와 그에 가까운 작품만을 모아 결정 본으로 삼고자 한다. 감히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내어 놓는다.”(박이도, 2008: 6)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시에 심취한 그는 1959년 《자유신문》 신춘문예에 시 〈음성音聲〉,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황제와 나〉로 등단한 후,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망과 숙명을 기독교 가치관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시를 써왔다. 그의 시세계에는 해맑은 눈과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 함께 무르녹아 있으며, 시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은 ‘생명과 자유, 사랑과 구원’이다. 기독교 신앙을 모태로 인간과 삶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통해 얻어낸 산물이다. 그는 시의 탄광에서 희망과 신앙의 참뜻을 캐내는 ‘언어의 갱부’였다.

이 논문에서는 박이도 시인에 관한 기존 연구가 이룩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아가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박이도 시인의 삶과 문학적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복잡계 이론의 ‘초기 조건의 민감성 (혼돈 이론)’과 ‘텍스트 소통 과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 (혼돈 이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자료 1.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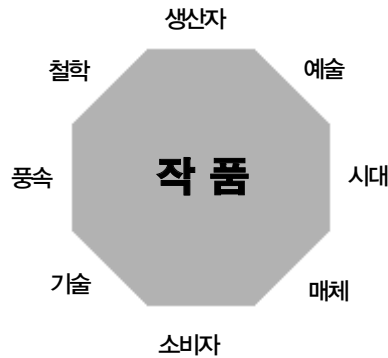
첫단계에서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¹⁹⁾’를 활용하여, 시 안에서 발생하는 정서의 창발 과정을 분석한다.

- ① 안정기 - 기존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② 혼돈기 - 새로운 경험이나 내적 갈등이 생기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③ 축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적 영향(섭동)과 내면적 갈등(요동)의 구체적인 소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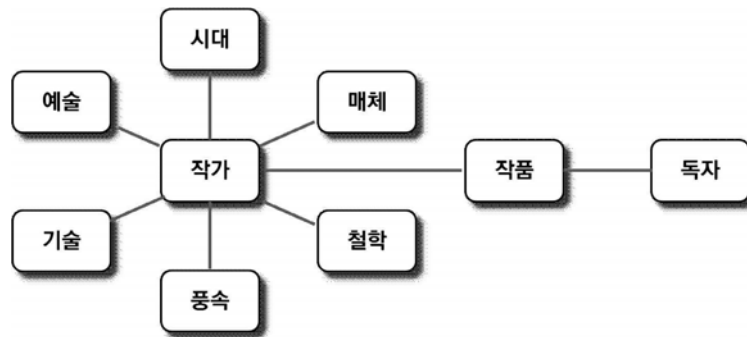
18) 축매 = 새로운 에너지 유입
외부적 섭동 = 외부에서 야기된 갈등
내면적 요동 =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급변기 = 창발기

19) 윤영수, 채승범,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 연구소.2005, 183쪽.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단계화 한 것이다. 이 도표는 2002년 월드컵 응원 분석 (193쪽), CEO 의사결정 (206쪽), 혁신의 확산 (432쪽)에서도 적용된다.

- ④ 임계점 - 시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새로운 변화의 자기 조직화가 최고점에 달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료 2. 작품 생성 구조



자료 3. 작가의 작품 생성 구조²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작가의 작품 생성 구조를 활용한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적 요소는 다양하다. 작가가 살아온 시대, 당대의 풍속, 기존의 예술적 풍토와 개인적 철학, 문학적 표현 매체, 표현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 네트워크 하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은 비선형적으로 형성되어 상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비선

20) 장영창 (2012), “판소리 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 복잡계 이론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5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여 판소리의 작품을 분석한 사례이다.

형적이라는 것은 생겨난 결과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결과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시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인의 대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시인의 언행이 시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고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안정기, 혼돈기, 임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을 통해 성서의 일반계시가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분석하고, 둘째, ‘나는 시를 쓰기 위해 알려 하지 않고 기독교를 알기 위해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 언행에 근거하여 시 속에 나타난 박이도의 신앙고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박이도 시인은 신앙시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삶에서 얻는 희로애락을 절제하고, 단순명료하게 살기 위해 시를 썼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이 두가지 삶의 자세를 지키기 위한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절기시들을 제외하고 신앙시를 써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쓴 적은 없어요. 제 시에 신앙의 흔적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만들어낸 것이겠지요.”(《국민일보》, 2008. 5. 1.)

박이도 시인의 시는 신앙의 흔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삶에서 얻는 희로애락’을 시의 소재로 활용한다. ‘의식과 체험 깊이 잠재해 있을 시신(詩神)’을 일깨우기 위하여, 박이도 시인을 특히 ‘자연’을 많이 활용한다.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반계시를 깊은 깨달음 속에 시로 형상화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로 시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탐색하고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를 삼는다. 박이도 시인의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자연 계시의 시적 형상화와 기독교 신앙의 시적 형상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자연 계시의 시적 형상화

박이도 시인의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의 시적 형상화’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다.

“저는 제 의식과 체험 깊이 잠재해 있을 시신(詩神)을 일깨우기 위하여, 자연을 찾아요. 저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학습의 장이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비경을 바라보노라면, 성서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의 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로우가 말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로 자연 속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절절합니다. 이러한 비의(秘儀)적인 자연의 속성 때문에 나는 언제나 ‘자연을 찾아 뛰어나가자’고 말하곤 합니다. 거기 우주의 신비와 비밀이 있고, 우리 스스로의 희망과 참 자유의 사고가 짝트고 있습니다. 대지 그 자체가 인간의 집이요, 정신적 의탁처인 것이지요.”(박이도, 2008: 169-169)

자연 계시의 시적 형상화를 ‘눈, 돌, 봄비, 안개꽃, 고드름’의 소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축복과 기도문으로서의 눈

㉠ 이것이 하늘의 신령(神靈)이라면
나에게 내리는 축복(祝福)이라면
차라리 두 손 모아
먼 데 향해 눈을 감으리

㉡ 일손 멈추고
커피향에 마음 다소곳이
그리고 망연히 바라보는 그림
하얀 눈보라가 밀려오고
바하 바하 바하 ...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풍금소리로 날리며
춤추는 지상의 요정들
이것은 지나간 날들의
길고 긴 추억이어라

㉢ 마음 정결히 비우고

㉣ 무반주 기도문에 귀 기울여
신에게 바치는 나의 언어들
이것은 바람이요
소리없는 음악이어라
크나큰 생명이어라
나에게 내리는 빛이어라

-〈설경(雪景)〉 (《안개주의보》)

눈이 ‘신령(神靈), 축복(祝福), 무반주 기도문, 언어, 바람, 음악, 생명, 빛’으로 비유되면서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와 교감하고 있다.(이재복, 2003: 277) 눈이 자신에게 내리는 신의 빛이라는 인식은 눈이라는 자연물 속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하고 신의 뜻에 감사하는 시인의 기독교 사상을 잘 보여준다. 이 시에서 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신령(神靈), 축복(祝福), 생명, 빛)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무반주 기도문, 언어, 바람, 음악)이 되기도 한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에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 주시는 ‘신령과 축복’으로 생각한다.
- ② 혼돈기 - ㉡에서 눈이 눈보라로 변하며 ‘바하 바하 바하 ...’의 음성상징어를 통해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추억하게 된다.
- ③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의해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
- ④ 임계점 - ㉢ ‘마음 정결히 비우고’에서 나의 마음이 변하는 임계점이 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무반주 기도문, 언어, 바람, 음악’으로 변하게 된다.

② 태고의 침묵을 깨는 돌

㉠ 너는 지상의 별
아직 이름붙일 수 없는
원시의 형상

㉡ 물 먹던 강돌이
색깔로 드러나며
꽃의 형상을 짓는다
햇빛 먹은 물들은
살아나는 몸짓으로
새의 형상을 짓는다

㉢ 말씀이여
무엇이라 이름할까

㉣ 이 지상의 별자리에
하늘을 내려 앉아
태고의 침묵을 깬다.

㉤ 내 피를 받아 숨을 쉬어라
물소리에 울어 보고
물빛에 눈을 떠 보아라

-〈자연송(自然頌) 5편, 돌〉 (《불꽃놀이》)

말씀이 이름을 붙여 주는 대로 돌은 ‘지상의 별, 원시의 형상, 꽃의 형상, 새의 형상’으로 구체화된 질료로 형상화 된다.(이재복, 2003: 277)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태고의 침묵을 깨는 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정기 - ㉠에서 돌은 아직 아무런 이름이 없는 상태이며 ‘원시의 형상’으로 잠잠한 상태이다.

② 혼돈기 - 이러한 돌에 ㉡에서 색을 입히고 몸짓을 하게 되면서 꽃의 형상과 새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③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잠잠히 있던 돌에 색을 입히고 몸짓을 하게 되는 것이 변화의 요인이다.

④ 임계점 - ㉢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작업을 의미한다. 빛이 있으라 말씀 하시니 빛이 창조 되었듯이 돌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변화의 임계점이 되는 것이다.

⑥ 한계점(최고점) - ㉣에서 말씀으로 인해 잠잠하던 돌이 ‘태고의 침묵’을 깨게 된다. ㉤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③ 생명의 봄비

㉠ 꽃밭에 비가 내린다
나도 꽃밭에 들어서서
봄비를 맞는다
우리는 축축이 젖는다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 꽃은 싹이 움트며 하늘을 본다
내 얼굴을 간질이며
사들었던 의식의 끝이 살아난다
드러나는 빗갈들을 익히며
나는 움트는 시늉을 한다

㉢ 여기는 꽃밭이구나

㉣ 침침한 골방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어제의 내가 아니구나

㉤ 지금은 모두가 봄비에
젖어 있는 것이구나
살아 있는 것이구나

-〈봄비에 젖어〉 (《불꽃놀이》)

봄비가 꽃에게 생명을 불어 넣듯이, 하나님의 봄비가 나에게 스며들어 살아 있음을 깨달게 해 준다. ‘아니구나/아니구나, 아니구나/내가 아니구나/어제의 네가 아니구나/’와 같이 아니구나라를 다섯 번 반복과 ‘내가 아니구나/어제의 네가 아니구나/’와 같이 나 자신의 시점과 타인으로 지칭한 시점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표현하고 있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 이 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프로그에 해당된다. ‘꽃밭에 비가 내린다’며 객관적 현실을 설명한다. ‘나도 꽃밭에 들어서서 봄비를 맞는다’며 객관적 상황을 나의 주관적 경험으로 환치한다. ‘우리는 축축이 젖는다’며 나 개인에서 우리의 공동체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며 깨달음의 경지, 인식의 승화가 이루어진다.

㉡ 혼돈기 - 봄비를 맞으며 나는 움트는 과정을 겪게 된다.

㉣ 임계점 - ㉠의 ‘여기는 꽃밭이구나’라는 자신의 현상황을 깨닫는 것에서 의식의 창발이 이루어진다. 인식의 임계점이 지난 후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 알게 된다. ‘아니구나’라는 부정을 통해 급상승된다. ‘내가 아니구나 어제의 네가 아니구나’를 통해 나도 너도 어제의 부정적인 모습, 죄인의 상태가 아님을 강조한다.

㉦ 한계점(최고점) - ㉣에서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된다. ‘지금’은 어제와 대비 되며, 나와 너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④ 회중의 기도 안개꽃

㉠ 그림일수 없는

저 안개

인상주의풍의

신비로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 6월의 교회당에 들어서면

나는 제단에 놓인

한 다발 안개꽃에서

나의 형상을 찾아내다

㉢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부활하는 기쁨을

나는 안개꽃에서 찾아낸다

㉣ 기도드리는 회중의

양심의 소리가
저 안개꽃의 향기로 스며 온다.

-〈안개꽃〉

시인은 안개꽃을 바라봄으로써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한 다발 안개꽃에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찾아낸 것이다. 지금의 나는,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나 개인의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중에게로 확산된다. 새생명을 찾게 된 회중의 기도는 ‘안개꽃의 향기’로 승화하여 표현된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 신비로운 안개꽃에 매료된다.
- ② 혼돈기 - ㉡ ‘한 다발 안개꽃에서 나의 형상을 찾아내다’ 나와 상관이 없던 안개꽃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꽃의 세계로 빨려들게 된다.
- ④ 임계점 - ㉢ 매력적인 안개꽃에서 나의 모습을 보다가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부활하는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시심은 깊어지게 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에서, 깊어진 시심은 나 개인의 차원에서 ‘회중’의 공동체로 인식이 확산되고, 회중의 양심의 기도가 이제 나에게로 ‘스며’들면서 나와 회중은 하나로 동화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기’로 승화된다.

⑤ 부활하는 고드름

㉠ 사랑해본 사람은 알리라
사람을 사랑하고 초목을 사랑하고
우주의 섭리 모두를 깨우쳐 본 사람은
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

㉡ 누가 사랑을 알리,
한순간 떨어져 사라지는 물방울의
완전한 사랑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 겨울 헛간에 달리는 고드름은
일시적인 경직
우주의 비밀을 아직 말하지 않는다

㉞ 어느 순간

고드름에서 떨어져

대지에 스며드는 변신

㉟ 만물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신비를

사랑해 본 사람은 알리라

㊱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성경에 새겨진 사랑의 뜻을

체험해본 사람은

물방울 하나의 투혼에

참사랑을 알리라

-〈물방울의 완전한 사랑을〉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1991))

‘고드름’은 ‘일시적인 경직’으로 순간의 짧은 생을 표현한다.(신진숙, 2004: 198) 하루살이와 같이 고드름은 곧 녹아 없어질 아쉬움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존재의 아쉬움을 소멸이나 절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실의 모습은 다른 삶으로의 이행과 변모로 해석한다. 딱딱한 고드름은 부드러운 물이 된다. 이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대지에 스며들고, 만물의 생명으로 스며들어 ‘부활’한다. 딱딱한 고드름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딱딱한 마음이 ‘어느 순간 떨어져’ 낮아진 마음, 스며드는 마음의 물이 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박이도 시인은 보이는 고드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주의 비밀, 부활의 신비를 들려 주고 있는 것이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㉞과 ㉟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이다.
 - ② 혼돈기 - ㊱의 고드름은 고체 상태의 ‘일시적인 경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우주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④ 임계점 - 이러한 정지의 상태에서 ㊱의 ‘어느 순간’ 변화의 순간, 회심의 순간을 상징한다. 회심의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물로 변하여 세상을 녹이며 스며드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이러한 변화를 통해 ㊱의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 ㊱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부분이다.

2.2. 기독교 신앙의 시적 형상화

박이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스콜라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셀무스(Anselmus)가 그의 명저 <대화>에서 한 말을 저는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는 ‘나는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야말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던 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나는 시를 쓰기 위해 알려 하지 않고 기독교를 알기 위해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로 패러디 했어요. 저는 문학이 혁명을 할 수 있다거나 인간에게 궁극적 구원을 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문학은 다만 정서적 인지적 충격을 통해 인간의 어떤 심원한 부분에 변화를 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조차 상대적 한시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 문학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울곧게 세워 주는 언어적 양식일 뿐입니다.”(박이도, 2008: 170-171)

박이도 시인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즉 시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성찰한다. 시를 쓰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시안에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박이도 시인은 시를 씀으로 인하여 신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학을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저의 오래된 신념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것을 앞세우면 혼란이 와요. 신앙은 영원불변의 가치인 데 비해 문학은 상대적 가변적인 것입니다. 문학이 신앙의 의미를 전달 심화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주시하는 기독교와 강력한 친연성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학은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불가시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박이도, 2008: 172)

그는 문학과 신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신앙은 영원불변의 가치인 데 비해 문학은 상대적 가변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문학의 속성을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불가시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① 삶 속에, 시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신앙

㉠ 언젠가 찰스 선교사집에서 먹어본

밀 빵의 냄새

코에 스며오는 만찬의 때

㉡ 망막에 정지했던 모든 사물을

내 주머니 속에, 책갈피 속에

오래 오래 숨겼다가

㉢ 방마다 불이 켜지는 생가에

기쁨을 더하고 싶다

박이도 시인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성장시켜 왔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③ 촉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박이도의 외부경험 - ㉠ ‘언젠가 찰스 선교사집에서 먹어본 밀 빵의 냄새’-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경험이 시인의 기억의 주머니 속에 ㉡ ‘망막에 정지했던 모든 사물을 내 주머니 속에, 책갈피 속에 오래 오래’ 무의식속에 심원한 의식으로 간직된다.

④ 임계점 - 현재에 와서 ㉢ ‘방마다 불이 켜지는 생각에’ 반추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은 박이도 시인에게 있어서, 과거 신앙적 삶으로 형성된 평화로운 추억이 하나의 ‘시적 향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시적 공간을 발화하는 임계점이 된다.

②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시

㉠ 밤 사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형상을 새로이 지으신다

㉡ 이른 아침 뜰에 나서면

풀썰에 숨은 이슬
햇살이 꺾어 매듯
사랑을 엮어 주네
밤 사이 진 감꽃들이
하얗게 웃음 짓는다
못다한 결백(潔白)의 생명으로
내 형상을 짓는다

㉢ 아 밤사이

내가 무엇을 꿈꾸었나
어둠에 빠져 허위적이며
먼 데만을 향해
손짓을 하였구나

㉣ 이 아침의 밝음을 두고

이슬의 총명(聰明)과
감꽃의 결백을 두고
나의 참 형상을 두고

-〈나의 형상〉

하나님은 태초에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듯이, 지금 ‘밤사이에도 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새로이’ 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최규창 1984: 181) 순수하고 깨끗한 ‘결백(潔白)의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빚어 주신 나의 인생이 그만 어두운 길로 잘못 들었다. ‘아 밤사이 내가 무엇을 꿈꾸었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한 것이 ‘어둠에 빠져 허위적이며 먼 데만을 향해’ 방향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시인은 허위적거리는 자신의 현실적 모습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시를 쓴 것이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정기 - ㉠에서 하나님이 매일 매일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한다. ㉠에서 나를 창조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부연한다. 이슬과 햇살의 환경과 감꽃의 식물 환경을 만드시고, 나를 ‘결백의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② 혼돈기 - 그런데 ㉡에서 ‘밤사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어둠’에 빠지고 ‘먼 데 만을 향해 손짓’하며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③ 한계점(최고점) - ㉢의 ‘나의 참 형상’을 두고 어둠에 빠지었던 것을 안타까워한다.

③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비밀

㉠ 요사이 나는

매일 죽는다

밤마다 하루의 일기(日記)로 진술하고

그 날의 “나”를 완전히 처형해 버린다

어둠 속으로 강물 위에 띄워 보내고

㉡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알약 하나씩 먹는다

㉢ 새 날에, 새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하여

아침 식탁에 앉는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먼저 식기도를 한다

-〈일상〉

박이도 시인의 시 〈일상(日常)〉은 죄에 대해 철저히 죽음으로 인해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비

믿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나’를 ‘처형’시키고, 새 날에 ‘새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최규창 1984: 179) 즉 ‘죄인의 나를 처형하고, 기도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구조이다. 이 시에서 매일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매일 참회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죽이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일기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고백했으면, ‘어둠 속으로 강물 위에 띄워 보내고,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죄사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이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② 혼돈기 - 이 시는 처음부터 격한 감정에 쌓여 ㉠ ‘요사이 나는 매일 죽는다’로 시작한다.
- ④ 임계점 - 나의 잘못을 완전히 망각하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자 기억을 지우는 ㉡ 알약을 먹는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 식사기도를 한다.

④ 종말에 대한 경고의 시적 형상화

㉠ 어둡고 긴 밤이다
모두 잠이 들었는가
지금 어둠이 열리고
먼 곳 지평의 마른 풀밭에
푸른 불길이 번져 온다

㉡ 저기 누가 있는가
소리없이 오는 자여
빛을 발하며 오는 자여
모든 말씀
생명으로 불려일으키며
인간의 육신으로
군림해 오는 자여
내일 해 쫓는 나라마다
그대 탄생(誕生)은 영광이로다
누가 꿈꾸었을까
옥합을 열어라

㉢ 몇 세기가 흘렀을까
기다리다 지쳐버린
백성이여
누가 먼저 잠에서 깨어날까

-〈전날 밤〉

이 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종말 후 세상을 구원하려 다시 이 땅에 강림한다는 구세주의 '재림' 사건을 함께 노래한 시이다.(신규호, 1988: 63) 성육신 전(前)의 시대는 '어둡고 긴 밤'이며 '모두 잠이 든' 밤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재림 전(前)의 시대도 '기다리다 지쳐버린 백성'들이 잠든 밤으로 묘사 되어있다. 박이도 시인은 절망의 시대에 누가 깨어나서 희망의 메시야가 오는 것을 맞이할 것인가 아쉬움을 토로 하고 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들은 어둠의 시대에 '푸른 불길' 같이 '빛을 빌하며 오는 자'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을 위로해 준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㉒ 혼돈기 -㉑에서 초림 하신 예수님을 푸른 불길로 표현하고 ㉓에서는 이것을 더 부연하여 묘사한다.

㉔ 임계점 - ㉓에서 시간적 흐름으로 인해 장면이 현대로 전환되었으며, 오늘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묘사하고 있다.

㉕ 기독교 소재를 우리의 현실에 접목시킨 시

㉑ 방랑객이 돌아온다

김삿갓 어른

몇 년 만의 환도(還都)인가?

서울 장안

어느 처마 밑에 여장을 풀 것인가?

㉓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았건만

누가 이 남루한 이조인(李朝人)을

맞아 줄 것인가?

㉔ 아니다

내가 영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 후손, 내 민족에게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왔나니

㉕ 오, 베들레헴의

그날 밤

춡고 추운 겨울밤
서울의 으스스한 빌딩을
징검다리 건너듯
지나가는 김삿갓

-〈사설(辭說)X-MAS〉 (《삭개오야 삭개오야》)

성탄이란 기독교 소재를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접목시켜 시적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삿갓은 조선사회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이로서 인생을 마감한 불운의 방랑자였다. 그래서 시인은 ‘누가 이 남루한 이조인(李朝人)을 맞아 줄 것인가?’라고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비운의 선비가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후손과 민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내용이다.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정기 - ㉠에서 조선시대의 김삿갓이 현시대에 환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② 혼돈기 - ㉡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의 영접을 받았지만 김삿갓은 누구의 영접을 받을 것인가 걱정한다.
- ④ 임계점 - 당대에는 비운의 삶을 살아야 했던 김삿갓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에서 ‘아니다’ 부정하면서, 불행한 삶을 전환시켜 오히려 후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에서 현실의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축복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김삿갓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3. 맺으며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작업은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내면적 사고와 가치관에 부딪히는 혼돈 속에서, 일정한 미의식으로 창발하여, 자기만의 미학적 취향을 향상시키면서, 문학적으로 자기조직화 하여 표현’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난 박이도 시인은 〈음성(音聲)〉과 〈황제와 나〉의 시로 등단한 후,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과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기독교 가치관과 조화시키며, 시를 창조해 왔다. 그의 시세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고독한 인간의 내면을 감싸주는 아늑함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생명과 자유, 사랑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계 이론 중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시인의 대답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시인의 철학이 시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자연을 통해 성서의 일반 계시가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박이도 시인은 자연

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눈, 돌, 봄비, 안개꽃, 고드름'의 자연의 소재가 박이도의 시적 언어를 통해 '축복과 기도문으로서의 눈, 태고의 침묵을 깨는 돌, 생명의 봄비, 회중 기도의 안개꽃, 부활하는 고드름'으로 승화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 라는 박이도의 신앙고백을 '경험을 통해 삶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신앙,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상황, 거듭남의 기쁨을 노래한 신앙'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작가의 작품 생성 구조'는 이 논문에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상황에서,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박이도 시인이 살아온 시대, 당대의 풍속, 기존의 예술적 풍토와 개인적 철학, 문학적 표현 매체, 표현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가 어떻게 상호 네트워크 하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가 하는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이도(2008). 『삭개오야 삭개오야』. 서울: 창조문예사.
 _____(2010). 『박이도 문학전집 1-4권』. 서울: 창조문예사.

2. 논문

- 김 현(1969). "기독교적 화평의 세계." 『현대시학』. 서울: 현대시학사.
 신규호 (1988). "신앙 체험의 예술적 승화." 『박이도 문학전집 4권』. 서울: 창조문예사.
 신진숙 (2004). "삶의 기원과 기억의 原-풍경." 『박이도 문학전집 4권』. 서울: 창조문예사.
 유성호(1999). "'빛'과 '신앙'의 의미를 깨는 언어의 광부." 『삭개오야 삭개오야』. 서울: 창조문예사.
 이재복 (2003). "빛과 영생의 노래." 『박이도 문학전집 4권』. 서울: 창조문예사.
 최규창 (1984). "빛의 작업 - 박이도의 시." 『박이도 문학전집 4권』. 서울: 창조문예사.
 최미정 (2000). "신의 그림자를 따라 자신의 참형상을 찾아가는 삶의 정신." 『한국 기독교 문인 연구 2』. 서울: 창조문예사.

3. 학위논문

- 김충기 (2003). "기독교가 박이도에게 끼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장영창 (2012). "판소리 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 복잡계 이론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4. 신문기사

- 이지현, "성서는 미약한 내 신앙의 보루(대답기사)" 국민일보 2008.5.1.